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와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거창하게 솟아오른 원산군민발전소 언저에 오르신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푸른 물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면서 멋있소, 대단하오, 하자고 결심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오, 대자연의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을뿐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킴으로써 강원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언저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는 대형글발을 가리키시면서 정말 힘이 난다고,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

전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기어올려야 할데서 우리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원산군민발전소의 연혁소개실과 원산군민2호발전소의 발전기실, 조종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 및 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발전소의 설비들에 대한 정상관리, 정상유지를 잘할데 대한 문제, 송전계통의 도중손실을 없애며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설비들을 안전하면서도 능숙하게 다룰데 대한 문제, 통합생산체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원산군민발전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당조직들은 간고한 투쟁으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한 강원도당위원회처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로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앞당겨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식경제시대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도에 맞게 개

건현대화되었으며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바다가풍치와 어울리게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키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돐이 되는 날이라고,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 밤 수묘하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물고기잡이실적, 저장 및 공급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종합지령실도 돌아보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어장탐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도입한 해양환경정보분석평가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

기가공설비조종체계, 전력감시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정양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이 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높다고, 어로공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래년에 이곳 사업소의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까지 멋들어지게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00일출어일수를 보장하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 식으로 월새없이 어로전투를 전개할데 대한 문제, 고기배와 어구들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릴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 사업소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음해에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선봉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오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12월의 흰눈이 이 땅을 덮고 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지나온 5년세월 산천도 사람들도 모든것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러나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은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의 그리움과 충정의 마음이다.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알찬 열매가 되어 이 땅을 인민제일주의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꽃피우는 현실을 보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민족의 령수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위인의 영생은 결코 그의 전기가 기념비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룩한 불멸할 업적으로 영생하는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이 깃든 아름다운 거리와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창조물들, 천지개벽된 사회주의전야와 백과가 무르익는 파수바다들, 팡활한 우주의 궤도를 새기는 조선의 실용위성과 최첨단들과의 기적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으로 다져진 불패의 군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거대한 애국유산을 남기시였는가를 가슴부듯이 체험하고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은 세계를 해석하고 그 길을 밝히는 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정일령도자는 왜 세계의 존경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외국의 언론은 그것은 크지 않은 조선을 가장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과 장기간의 제재속에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강한 지도자는 적도 존중할수밖에 없다고 쓴적이 있다.

재부는 늘일수 있어도 한 민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없으며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시대에 조선은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당당

태양은 영원히 우리를 밝힌다

한 존엄과 무진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었으며 제국주의의 힘의 통치를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정의의 극,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의 보루로 우뚝 서게 되었다.

우리 민족과 시대를 이끄신 아버지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밑바탕에는 소리없이 녹아 대지에 스며드는 생명이 되는 흰눈처럼 사시려는 순결한 헌신의 세계가 놓여있었다.

인민이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을 언제나 하늘로 내세우시었다. 인민을 위해 주실수 있는것은 다 안겨주시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우는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장군님이시었다.

어느해 태양절 황홀한 축포가 터져오른 그날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은 다 기뻐만 하는데 난 그 축포를 보면서 인민들을 생각했다고, 고생한 인민을 잘살게 해주지 못하고서야 내가 어떻게 발편장을 자겠는가하고 하시며 눈물을 적시시었다.

그이께서는 한평생 육체의 국한점을 초월하는 놀라운 정신력으로 밤잠도 잊으시고 더 많은 곳을 찾으시고 더 많은 인민을 만나시며 초강도현지도도 강행군을 이어가시었다.

일찌기 룡남산에서 다지신 조선을 세계에 떨치리라는 맹세를 지켜 나라와 민족앞에 강국건설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시고 자신의 한생을 바쳐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치료를 받으셔야 할 몸이시였으나 그 모진 아픔을 참고이시며 인민을 위해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 또다시 오르시였던 장군님이시었다.

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있어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침략전쟁책동과 끈질긴 경제봉쇄속에서도 주체철완성과 비날론대경사, 유연생산체계의 최첨단들과, 주체비료생산체계의 완성 등 자랑찬 경제건설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오늘은 수수란까지 보유했한 강위력한 나라로, 그 어떤 재해도 길들여 전화위복의 패승을 안아오고 철령아래 사파바다와 황금해의 새 령사를 비롯한 온갖 사변들을 다계단으로 펼쳐는 기적의 나라로 행성의 이목을 끌고있는것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라고, 《조선은 하나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언제나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실현으로 전민족을 이끄시었다.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두차례의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한 공동선언들이 채택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로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반목과 질시, 대결과 불신이 두러웠던 조국강도에 민족적단합과 화해,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업적을 겨레는 잊지 못하고있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장군님을 존경하여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신 국방위원장님을 길이길이 마음속에 기억할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유래영재미동포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이 세계 곳곳에서 약소국가들을 집어삼키려고 발악하는 정세하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튼튼한 유산을 닦아놓으시었다.》고 경모심을 피력하였다. 조국통일을 최대의 애국이라고 하시며 통일된 조국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조국통일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한평생 오로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부강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그이의 민족자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민족의 앞길에는 보다 창창한 미래가 열리고있다.

나는 우리 장군님을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받들고 장군님 걸어오신 길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라고 하신 12월의 그 맹세를 지켜 원수님께서서는 태양의 령사를 빛나게 이어가 고계신다.

아버지장군님의 위업과 유훈을 받들어 통일된 강국의 령명을 불러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비유했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강국건설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시대와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마음속에 길이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리경월



